로컬플러스

군산경찰서,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는 교통법규 준수율 제고를 위해 관내 주요 교차로에서에 정지선위반 차량 및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통 통행량과 신호위반, 꼬리물기 등 교통법규위반이 많고 보행자 교통사고우려가 높은 교차로에서 실시된다. 경찰은 주요 교차로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 가시적인 현장 활동 전개와 현수막 게시 등 각종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규위반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엄정계도·단속을 실시해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기관 공개모집

군산시는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2016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운영할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지역장애인에게 조사·연구, 교육, 상담, 정보제공, 지역사회협력사업 등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재활능력 및 자립능력 향상 등 종합적인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수탁신청 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등기상 등록된 시설·법인·단체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장애인교육기관으로 자격을 갖추고, 사무실 면적 99㎡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수탁운영 신청서류는 오는 6월 17일까지 군산시청 복지지원과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소방서 미륵산 등산객 응급처치

익산소방서 에 따르면 최근 한 등산객(여, 36세)이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미륵산 중턱에서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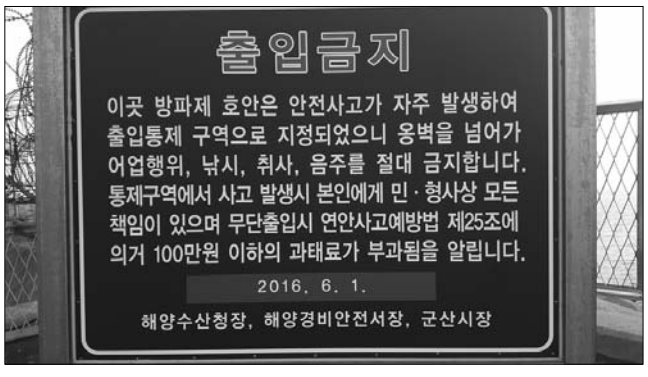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원들은 구급대원들과 신속하게 현장응급처치를 실시하였다. 이후 등산로 경사로가 가파른데다 추후 2차 손상방지를 위해 소방헬기를 요청하고 산악용 들것을 이용하여 인근 헬기 착륙장으로 이동, 항공구조대에 안전하게 인계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박한규 119구조대장은"봄철 산행 시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장비 및 응급처치 장비 등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개인 전강을 고려치 않은 무리한 등산은 오히려 큰 사고로 이어질수 있으니 항상 안전에 유의하며 등산해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 방파제 호안 불법낚시 기승

출입금지 경고문 무시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군산시와 해경은 관내 방파제 호안에서 낚시객 추락 등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방파제호안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방파제 입구에 출입금지와 과태료를 알리는 경고문을 설치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군산시와 해경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파제 호안에서 불법낚시행위가 여전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군산시 오식도 남방파제와 비응도 방파제에서 수 많은 낚시객들이 보기에도 위험천만한 테트라포드(TTP) 위에서 낚시에 여념이 없다.

군산시와 해경은 관내 방파제 호안에서 낚시객 추락 등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방파제호안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방파제 입구에 출입금지와 과태료를 알리는 경고문을 설치했다.

하지만 낚시객들은 출입을 금지하는 경고문도 아랑곳하지 않고 테트라포드 위를 넘나들며 낚시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어린이를 동반한 낚시객도 목격되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낚시객들은 미끄럼을 방지해주는 낚시화는 물론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채 낚시를 즐기고 있다.

인근 비응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곳 또한 방파제 테트라포트 위에서 안전장구 없이 수 십명의 낚시객이 낚시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처럼 테트라포트 위에서 낚시를 즐기거나 이동 시 발을 헛디뎌 자칫 아래로 추락하면 인사 사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물이끼가 끼지 않았더라도 테트라포트 자체가 원형으로 제작되어 미끄럽기 쉽기 때문에 테트라포트에 올라서는 것 자체가 무모한 행동이다.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는 전국적으로 해마다 90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군산 관내 방파제 추락사고는 26건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12월 남방파제 테트러포트에서 낚시를 하던 40대 남성이 추락 해경에 구조됐고, 앞선 2011년 한 무속인이 테트라포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이와 같이 관련기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위험천만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낚시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낚시철이 다가오면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미끄러운 방파제구조물에서 목숨을 담보로 한 낚시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방파제 호안에 무단출입시 연안사고예방법 제 25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의회 지역발전 협력·상생 간담회 개최

농업수도건설 등 시정현안 해결 위해 다양한 의견 교환

익산시는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실질적 협력을 위한 만남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전행정국, 문화산업국 사업전반에 걸쳐 토의가 이뤄졌다.

송호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문화산업국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행정수도 건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립추진,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 추진, 백제왕도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정체성 확립 등 주요사업에 대해 심도 깊은 질의 답변이 이어졌다.

송호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집행부와 협력하여 시정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시의 주요사업은 의회와의 충분한 의견교환 및 소통을 통해 함께 해결해나가자며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주요사업에 대한 격의 없는 대화 속에 다양한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시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으로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하고 의원들도 사업에 대한 질의와 답변으로 내실 있는 간담회를 만들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공설시장,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선정

군산공설시장이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한 '2016년 전통시장 청년 몰 조성사업'에 선정됐다.

청년 몰 조성사업은 전통시장의 유휴공간에 쇼핑과 문화, 놀이가 융합된 지역상권의 랜드마크로 육성해 인바운드(In-bound) 수출의 첨병 역할을 수행토록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을 통해 군산시는 1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군산시는 공설시장 2층에 지역상권의 특징을 반영한 청년 점포 리모델링과 휴게시설 등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 몰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마케팅 등을 통해 새내기 청년 상인을 위한 창업교육과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진수 군산시 지역경제과장은 "오랫동안 비어 있던 점포에 청년 몰 입점을 통해 전통시장에 활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참신한 경영마인드 및 아이디어를 통해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로 인해 방문객 증가에 따른 유발효과가 창출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보건소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여성 청소년 건강 상담·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무료 지원

군산시보건소(소장 전형태)는 초경을 전후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과 질병예방을 위해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이달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2003.1.1~2004.12.31 사이 출생한 여성 청소년으로 대상자는 가까운 사업 참여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전문의료인의 1:1 여성건강 상담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등 두 가지 서비스를 각 2회 무료 지원 받을 수 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백신은 HPV 2가 및 HPV 4가 백신이며 접종은 1차 접종 후 6개월 간격으로 2차 접종을 실시한다.

그동안 1회 접종에 15~18만원을 전액 본인이 지불해야했던 접종비용이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에 추가되면서 보호자의 예방접종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참여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보건소 예방접종실(☎460-3244)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사춘기 여성 청소년이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경시기 건강관리와 더불어 여성암 예방을 위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예방접종을 챙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서천 광역시티투어 버스 '인기몰이'

군산~서천 광역시티투어 버스가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이다.

도(道)를 넘나들며 군산과 서천의 주요 관광지를 한 번에 둘러보는 광역시티투어 버스는 지난 4월 시범운행을 시작해 두 달간 정기운행 15회와 단체관광객 요청으로 추가운행 4회까지 총 19회 운영, 총 637명이 탑승했다.

특히 학교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으로 광역시티투어를 선택해 하루 동안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일원과 서천의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산모시관까지 다양한 학습 소재를 가지고 있는 코스로 학생과 선생님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김성우 군산시 관광진흥과장은 "시범적으로 운행한 광역시티투어버스가 큰 호응에 힘입어 이달부터 정식 운행될 예정이다"며 "관광활성화 협약을 통한 상생의 관광 상품인 광역시티투어버스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역시티투어버스는 군산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시설입장료를 포함해 9000원이면 이용가능하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경찰 중앙지구대 직원·상설중대원 합동 순찰

익산경찰서(서장 이동민) 중앙지구대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 상대 범죄를 예방하는 동시에 대국민 치안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근 직원·상설중대원 합동으로 모현동 일대 집중순찰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순찰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안요소를 제거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범죄취약요소를 개선하여 면밀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날 중앙지구대 직원과 상설중대원은 모현동 소재 제일아파트-원여고-고현초교-명성아파트에 이르기까지 가시적 순찰활동을 실시하며 주택가, 공동화장실, 소공원, 골목길 등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펼치고, 더불어 취약원인에 대한 분석 및 주민 애로사항 청취를 병행했다.

김용대 중앙지구대장은 "안전한 익산을 위해 특별치안활동 기간 중 범죄취약지역을 정밀 분석하여 집중순찰 및 지역·시설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치안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